

죽음으로 진실 물을 수 없어...5·18 규명 계속돼야

잊지 말고 기억해요

2021년 사건·사고 결산

<5·끝> 전두환·노태우 사망

5·18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 씨와 노태우씨가 올해 숨졌다.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발표명령자, 암매장·행방불명자 등 미완의 5·18 진상 규명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도 이뤄지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전씨 사망 등을 계기로 5·18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열망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전씨는 경남 함천에서 태어나 대구공고를 졸업했고 전씨보다 한 살 어린 노씨는 대구공고의 전신인 대구공업중을 거쳐 1951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둘은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기) 동기

광주학살 원흉 끝내 입 안열어 회고록 통해서 되레 5·18 왜곡 5·18진상조사위 활동 성과 못내 신군부 핵심인물 조사 기회 놓쳐 사망감 갖고 진상 규명 나서야

생으로 만나 독특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육사출신 사조직인 '하나회'를 이끌었다.

전씨는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보안사령관 등을 지냈다. 노씨는 전씨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전씨는 특히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으로 지난 1979년 12·12 쿠데타를 주도했다. 노씨도 당시 9사단장으로 전씨의 집권을 도왔다.

전씨는 이듬해 5월 광주 민중항쟁을 유험 진압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1981년 제11대 대

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철권통치를 하다 5·18 학살 진상 규명, 대통령 직선제 촉구 등 민주화 열기에 놀려 1988년 권좌에서 밀려났다. 노씨도 전씨의 지원으로 13대 대통령에 올랐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전씨와 노씨는 술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5·18 관련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88년 5공 및 광주청문회, 이어진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와 재판,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을 거치면서도 5·18 핵심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

노씨는 지난 2011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80년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며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를 습격한 것"이라고 주장해 지역민의 공분을 샀다.

전씨도 '5·18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지난 2017년 펴내 역사 왜곡을 시도하기

도 했다.

'5월의 사제'로 불리던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항소심 진행 중 숨져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대로 중단될 전망이다.

전·노씨의 사망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출범 2년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데다, 신군부 핵심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미적대다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비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7일 대국민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의식해 '핵심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일부 조사 내용 공개'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전·노씨가 없더라도 5·18 진상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 내내에도 바뀌지 않는 지역민들의 최우선 요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재판 위증' 송진원 무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전두환씨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판사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쟁점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로, 증인으로 출석한 송씨의 광주방문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면서 "1995년~1997년 검찰 조사와 2018년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두환 재판 당시 광주 방문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고의로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강경진압 거부 정웅 전 사단장 별세

회고록 집필...유족들 발간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31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鄭雄·사진)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0시께 서울 자택에서 평안하게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3세.

순천에서 태어난 정 전 의원은 순천중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1949년 육군 호국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서 30년이 넘는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6·25 전쟁 때 전쟁 중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뒤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1980년 1월 소장 진급과 함께 광주 제31향토사단장으로 부임했다.

5·18 초기 강경 유험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가 사



단장직에서 해임된 뒤 예편을 당했다.

1981년 제1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외부 강압으로 중도 사퇴했고, 1987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부의장을 거쳐 1988년 광주시 북구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 전원의 아들 대균씨는 "아버지가 최근까지 회고록을 준비했지만, 발간 하진 못했다"면서 "아버님의 책은 추후 발간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민에게 힘 주는 '산타 의료진' 성탄절을 앞두고 23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하는 연축하기 위해 산타복장을 한 채 오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산단 화재' 원·하청업체 대표 2명 입건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국가산단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화재사고(광주일보 6월 14일 6면)와 관련, 저장탱크 내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사측의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난 이일산업에서는 지난 2004년에도 유사한 인화성 액체 유증기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회사측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투자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연료탱크 내부에 30% 가량 남아있던 유기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 전 탱크 내 액체를 제거하도록 한 정부의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는 게 노동청 판단이다. 노동청은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인화성 물질을 그대로 탱크에 남겨놓고도 작업 현장 주변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을 제

거했다고 표시한 회사측의 '안전작업허가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광주노동청 전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폭발 화재 사고 과정에서 필요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산소 ▲점화원 등 3가지 조건을 파악중이다. 광주노동청은 이일산업 법인과 대표, 도급을 맡았던 A 플랜트 업체 대표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이일산업 현장관계자와 A 플랜트 대표 등 4명 외에 수사 과정에서 안전조치·안전교육 등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 회사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삼호(56)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청장은 임기를 약 6개월 가량 남겨놓고 있지만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 2017년 7~9월 자신이 이사장이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더 불어민주당 관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청장은 폐기 처리해야 할 상품(숙주나물)을 기부해온 것이며 골프 비용 역시 친한 선배의 남편으로 선거구민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김 구청장 지지 당원을 모집한 행위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 경선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숙주나물 선물도 기부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처음부터 기부 행위를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뒤 기자들에게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h1>상가매매(상무지구)</h1>	<h1>장성 토지(매매 분양)</h1>	<h1>경매교육 [특수전문반]</h1> <p>기초반, 중급반</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총 1760평</p> <p>(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p>·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td> </tr> <tr> <td>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td> </tr> <tr> <td>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td> </tr> <tr> <td>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td> </tr> <tr> <td>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td> </tr> <tr> <td>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td> </tr> <tr> <td>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td> </tr> <tr> <td>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td> </tr> <tr>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td> </tr> <tr> <td>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td> </tr> <tr> <td>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td> </tr> <tr> <td>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td> </tr> <tr> <td>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td> </tr> </table> <p>062-382-5500</p>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